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6장. 정치적 자유 (1): 매스 미디어의 문제들

자유주의적 공적 플랫폼 또는 자유주의적 공론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설계

집합적, 형식적, 공개적 행동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과연 어떤 형식과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 의견은 타인들과 소통하는 것일까? 개인적 의견이란 과연 어떻게 한 사회가 지닌 거버넌스의 형식적 구조들에 의해서 여론이나, 정치적 의견, 정치적 관심을 받는 가치로운 주장으로 전환되는 것일까? 개인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가며, 저마다 완전히 다른 물질, 지적, 사회적, 형식적 연결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앞의 질문들은 복합적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권력자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피지배자들 (subjects)이 아닌, 동등한 민주적 정체(政體, polity)로서 시민들(citizens)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중략.....)

공론장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정보와 관점을 주고 받는 네트워크 (이를테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자신의 의견들을 표현하는)”로 정의한다. 공론장이란 정보와 정보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교환되고 필터링되고 종합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는 “주제별 여론의 묶음으로” 정리된다.¹

(..... 중략.....)

다양한 플랫폼들의 상대적 장점들과 약점들을 검토하려면 우선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파악해야만 한다. 여기서 관건은 공론장에 가장 이상적 제약들과 행동 유도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거나, 적법성을 갖춘 공론장의 형태나, 민주주의의 개념에 부합하는 가장 관심을 끌만한 공론장 형태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분석하는 이유는 공론장을 이루는 특성들을 밝히려는 것이다. 공론장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실행을 갖춰야만 폭넓은 민주주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충분한 것일까? 그 기본적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준거로 삼아 상업적 매스 미디어와 디지털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창발하는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수용(Universal Intake) 그 어떤 정부 시스템에서든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받아들여 진다: 시스템에 의해 지배받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들은 잠재적으로 타당한 정치적 행동을 위한 아젠다로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구성원들은 공론장의 필요조건을— 공론장은 모든 구성원들 (constituents)의 발언을 정확히 포착하여 담아내야만 한다—구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공론장은 사람들이 현재 세계의 상황을 깨닫고 내놓는 의견들과 바람직한 대안적 행동방안(alternative courses of

¹ Ju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1996).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action)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 중략.....)

인증을 위한 필터링 (Filtering for Accreditation) 정보에 대한 인증은 정보가 가진 관련성에 대한 판단과 다르다. 인증은 다양한 종류의 판단들을 필요로 하고, 기본적 관련성 필터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대통령이 화성인들에게 우주 정책을 팔아버렸다”라는 진술은 “아빠가 내가 원하는 사탕을 안 사 줘요”와는 다르며, 잠재적으로는 “대통령이 석유회사들에게 에너지 정책을 팔아버렸다”와 같은 수준의 관련성을 가진 진술에 해당한다. 전자의 진술이 정치적 토론이 아니라 유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직업 규범들이 가진 기능은 언론의 프로페셔널리즘에 신뢰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전문적 언론은 널리 대중에게 인증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정당들(政黨)은 관련성과 인증로 구성된 필터링 절차를 관대하게 심사하여 넘기는 주된 경로를 제공한다.

(..... 중략.....)

“여론”의 종합 (Synthesis of Public Opinion) 공론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개인적 의견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클러스터들은 소수의 개인들이 가진 사적인 의견들을 넘어 여론을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러스터들이 통합되는 방식은 복잡하다. 과연 어떤 내용의 의견을 “여론”(public opinion)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론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에 따르면 여론의 종합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² 시민적 공화주의자들(Civic republicans)은 공공숙의(public deliberation)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역할의 내용이란 공공선(common good)에 대한 신중한 숙고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에 해당하는 브루스 애커먼(Bruce Ackerman)은 여러 선(善)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으로 체계화된 논쟁들만을 숙의의 대상으로서 인정한다. 반면에 하버마스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외적 강제가 없는(absence of coercion) 상황이 확실히 보장되는 공론장에서의 숙의에 중점을 둔다.³

(..... 중략.....)

² 저자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쇠퇴한 공론장의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를 비교하여 검토한다.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합의를 추구하는 대중에 이론적 뿌리를 둔다. 따라서 여론을 통한 합리적 합의를 중요시여기며 전체적 통합이라는 열망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롤즈가 주장하는 민주사회의 공동체적 귀속감과 통합은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의’에 의해 지배되며, 전체적 통합을 향한 열망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 반면,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는 개인에 대한 전체의 우월성에 바탕하는 공공선의 도덕적 우위에 초점을 둔다. (옮긴이)

³ 하버마스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론장에서 의견을 형성하는 의사소통적 권력을 가진다. “행정적 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의사소통적 권력”의 발생과 순환을 도와야 한다. 외적 강제가 없는(the absence of coercive force) 이상적 발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을 상정하며, 행정적 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옮긴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정부 통제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from Government Control)

개인적 수준에 머물렀던

견해들, 직관들, 의견들을 공식적 여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 공론장의 핵심적 역할이다. 그러므로 여론은 정치적 시스템 내부의 집합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정부 관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 플랫폼이 만일 동일한 플랫폼에 속해 있는 정부에 의존적이라면 공론장의 역할과 정부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된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公衆)에게 승인받고 싶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정부에게 비우호적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공론장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정부의 지위를 배제하고,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옹호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이 구체화되는 현장에 해당하는 공론장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어디까지나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들 가운데 한명으로서 활동해야 하며, 플랫폼의 통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공론장 플랫폼을 통제하려 든다면 플랫폼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

(..... 중략.....)

매스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비평들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매스 미디어 모델은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앞서 설명한, 매스 미디어의 허브-스포크(hub-and-spoke) 기술구조와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종료점 수신모델(endpoint-reception model)은 사회 통제를 손쉽게 해주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핵심적 미디어를—국유 TV, 라디오, 신문—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했다. 누군가의 진술을 대량으로 배포하려면 높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를테면, 체제의전복을 선동하는 출판물들을 멀리있는 다수의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대부분의 권위주의적 사회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가진 지하 출판사 “사미즈다트”(samizdat)가 은밀히 활동했지만, 그 방식을 이용하려면 공적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불리한 약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⁴ 권위주의 국가의 독자들, 청취자들, 시청자들의 수동성(passivity)은 권위주의적 공론장과 맞아 떨어졌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수 많은 자발적 지지자들을 양산하려고 했다. 적어도 국민들이 정부의 말에 잠자코 따르기 원했으므로 공론장의 여론을 막후에서 조종했다. 그 결과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실제 사용할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 중략.....)

반면, 매스 미디어의 장점을 옹호하는 논리들도 다양한 문헌들에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⁴ 사미즈다트(Samizdat)는 자비출판(self publishing)이라는 뜻의 러시아어이다. 구 소련 시대의 지하출판을 의미하며 비밀경찰의 감시나 검열을 피해서 반체제 인사들의 글들, 정치적 분석, 문학작품 등을 공식적 미디어를 통해서 발매가 금지된 문헌들을 은밀하게 출판하였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의 문학작품들은 사미즈다트에 의해서 출판되었다.(웁긴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다. 첫째, 매스 미디어는 정부, 정당, 특권 계층의 재정적 후원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했다. 특히,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국유 미디어가 처한 환경과는 확연히 다른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감안하면 정부의 영향력 범위 밖에서 공론장 형성하기 위해서 상업적 매스 미디어는 필수적이다. 둘째, 상업적 미디어는 복합적 사회에서 감시자 기능을 수행하기 알맞은 프로페셔널리즘과 커다란 뉴스 편집실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거두는 수익 때문에 미디어는 공론장 기능 가운데 “보편적 수용”(universal intake)기능을 “신중히 조사된 관찰”(well-researched observations)로 대체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이 역할을 미디어가 떠맡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 매스 미디어는 폭넓고 보편적인 시계(視界)와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사회 내부에 널리 퍼져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발견하여 플랫폼 위에 올려놓아 공적 아젠다로 만들 수 있다. 매스 미디어는 공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필터링을 수행하고, 이슈에 대한 진술들이 신뢰성을 가졌는지를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적 관심사나 이슈들은 사안에 정통한 시민들(informed citizen)이 공적 논쟁의 소재로 삼기에 알맞은 정리된 주제들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조율되고 걸러진 한정된 분량의 논점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미디어 “편집자들”(slots)은 이슈들의 논점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면서 여론의 형성을 조장할 수도 있으며, 잠재적 집합행동으로 이어지는 공적 관심사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⁵ 6장 후반부에 상업적 매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론들을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특히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비시장기반 생산(협업적, 개별적)의 발흥이 오늘날 민주국가들이 안고 있는 매스 미디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완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중략.....)

상업주의 저널리즘의 정치적 무감각

상업적 매스 미디어와 관련된 두번째 우려는 공적 담론 및 정치적 담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미디어의 의지와 역량을 상업주의가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업주의에 대한 우려는 미디어가 휘두르는 과도한 권력에 대한 우려와는 상반된다. 고도 집중화된 형태의 매스 미디어가 소유주의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는 의견만을 내보내면서 미디어 권력을 행사하리라는 우려보다는 상업주의가 진정한 정치적 관심사를 아예 미디어에서 몰아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팽배하다. 일간지 캔자스시티스타(Kansas City Star)의 발행인이었던 윌리엄 록힐 넬슨(William Rockhill Nelson)이 1915년에 언급했던—그리고 벤 바그디키언(Ben Bagdikian)이 재인용했던—지적은 이런 우려를 잘 나타낸다.⁶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식탁에서 신문을 읽는다.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은 입맛(appetite)이므로 식사 중에 입맛을 망치는 그 어떤 것도 신문에 실어서는 안된다.”⁷ 미디어 상업주의가 초래하는 해악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도처에 넘쳐난다. 넬슨의 비판은 상당히 간명하며 세 가지의 명확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광고의 재정적 후원을 받는 매스 미디어는 가장 활동적 시청자들이나 콘텐츠에 만족하는 시청자들이 아니라 가능한

⁵ slot man은 신문사의 기사 정리 부장(copy editor)을 뜻하며 뉴스의 정보를 다듬는 역할을 한다 (윌킨이)

⁶ <캔자스시티 스타(Kansas City Star)>는 공적 이슈에 대한 수준높은 탐사보도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 저널리즘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윌킨이)

⁷ Ben H. Bagdikian, *The Media Monopoly*, 5th ed. (Boston: Beacon Press, 1997), 118.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다수의 대규모 시청자들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단위별로 세분화된 시청자들이 원하는 최선의 최적 선호들(first-best preferences)을 제쳐두고, 최소공통분모 프로그램 편성과 폭넓은 시청자들을 아우르는 차선적 선호(second-best appeal)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둘째, 미디어는 진정한 정치적 관심과 잠재적 정치적 주장들을 누그러진 강도로 전달한다. 미디어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치적인 의견을 영상적 표현방식(iconic representation)으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수완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면모는 이미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구조변동(The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에서 구경거리의 재출현(reemergence of spectacle)이라는 설명으로 예견했다.⁸ 최소공통분모(lowest-common-denominator) 프로그램 편성이란 미디어가 잘 정리된 정치적 견해를 담은 영상적 표현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치적 논란거리를 야기할 만한 편성을 처음부터 회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적 관점을 여과없이 전달하려다가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저 가벼운 흥미거리 정도로만 다루려는 것이다. 전문적, 상업적 미디어가 지난 15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방적 전달방식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 미디어는 그 모습들을 마치 연기하듯이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누군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널리 알려진 정견(政見)을 대변하면, 비슷하거나 다른 대안을 가진 상대방과 대립하게 된다. 곧이어 양측은 여론의 분신들(avatars)처럼 의견 충돌을 벌인다.

(..... 중략.....)

광고 후원을 받는 매스 미디어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본원칙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경쟁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1952년에 피터 슈타이너(Peter Steiner)가 내놓은 분석은 광고 후원을 받는 미디어의 프로그램 편성방식을 비판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슈타이너는 광고 후원을 받는 미디어가 시청자 만족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며 오직 시청자들의 수에만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미디어들은 가장 규모가 큰 시청자 시장들을 나눠가질려 다툼을 벌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청자 시장들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결과 아주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독점적 미디어는 보유채널들을 모두 소진해서라도 각각의 세분 시장(market segment)에 채널을 배분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원한다. 채널의 배정은 규모가 큰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독점적 미디어는 두 개 이상의 채널에서 시트콤을 보기 원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여러 채널을 배분할 유인(incentive)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채널에는 시트콤을 다른 채널로는 차순위의 인기 프로그램을 내보낼 것이다. 한편 복수의 경쟁자들이 존재한다면 채널배분 선택은 달라진다. 시트콤을 선호하는 시청자수를 절반으로 나눈 수치가 차순위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려는 전체 시청자의 합보다 여전히 많다면 경쟁적 미디어는 모두 시트콤을 방영할 것이다.

⁸ 예를 들면 TV뉴스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진지한 분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심히 연출된 정치적 구경거리(spectacle)를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정치 캠페인에서는 미디어에 드러나는 이미지가 정치인의 실제보다 부각되므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공하여 홍보하는 TV광고, 토론회, 미디어 이벤트가 선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건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